

전주를 한민족 정체성 학습장으로

전주시, 전통숙박 체험관·한민족 이주 민속박물관 등 대선평약 확정

전주시가 전 세계 176개국에 분포된 재외동포에게 대한민국의 전통문화 등 정체성을 배울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계획을 제19대 대선공약에 반영되도록 집중하고 있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총 600억원을 들여 전주시 일원에 국립 재외동포 교육과학단지(요스데이)와 전통숙박 체험관, 한민족 이주 민속박물관, 놀이공간 등을 갖춘 재외동포 전통문화 교육기지와 사업을 대선평약으로 확정, 주요 정당과 지역 국회의 원 보좌관 등에게 대선평약 반영을 건의했다.

전통문화 교육기지와 사업이 추진되면, 수많은 재외동포 2·3세대가 전주에서 대한민국의 전통문화와 한국인의 정체성 등을 배울 수 있고,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전주를 알릴 민간 홍보대사가 돼 전주가 글로벌 문화도시로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으로, 시는 재외동포들이 대한민국의 전통문화와 정신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립 재외동포 교육과학단지와 국립 재외동포 교육관 등을 전주에 건립하는 계획을 대선평약사업에 담았다.

이는 전주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다양한 전통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48개 유네스코 회원국이 가입한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가 위치해있고, 가장 한국적인 관광지인 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 등도 있어 전통문화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 눈에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또, 한국전통예절과 전통숙

박 체험관, 휴게 및 놀이마당, 한민족 이주 민속박물관 등을 설치하고, 한글과 한복 등 다양한 한문화 체험·교육 프로그램과 오락적 기능, 미래과학 산업이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을 운영하는 방안도 대선평약사업에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단순한 교육공간을 넘어 통해 재외동포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의 감성을 자극할 전통문화 관련 교육과 놀이, 체험이 연계된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전통문화 중심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비 지원 등 국가적 지원체계 등을 주 골자로 한 '가칭'전통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대선평약사업의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해나가고 있다.

또한, 전주 전통문화 조성사업을 구

체화하기 위해 △천년역사 정립·재창조 △문화유산 거점 구축 △전통문화기반 4차산업 선도 등 3대 핵심정책 9개 단위사업을 대선평약으로 건의했다.

9개 단위사업은 △조선시대 지방행정 거점유산 복원 △재외동포 교육 기지화 △한문화 헤리티지로드 재창조 △문화유산 거점 구축 △국립천년의 뮤지엄 △전라정신의 숲 국가기록원 △전통놀이 테마파크 조성 △전통문화 어드벤처 밸리 구축 △전통문화 디지털 기술 융합 R&D센터 △(가칭)한국전통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등이다.

이러한 아시아 관광허브도시 프로젝트가 대선평약으로 채택되고 실현될 경우,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국가예산 지원으로 도시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이 가능하고 국가적인 문화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으로 만든다

전주시가 하천 산책로의 전동기 운행 등 전주시와 삼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이동수단 및 취미로 각종 받고 있는 친환경 전동기(스마트 모빌리티)를 즐기는 시민들이 증가하면서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전동기의 천변 산책로 진입 및 운행을 전면 통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가 경찰청 등에 문의한 결과, 전동기의 사전검정자 검증도로 통행 시(차마 통행금지 표지판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조를 적용해 법칙금 4만원과 과태료 5만원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시는 전주천 산책로 주요구간 10곳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통행금지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전주천 주요구간에 전동기 운행금지를 위한 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단속 및 홍보에 나서는 등 천

변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힘을 기울인다.

이와 함께, 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주천변에서 열리는 새벽시장의 오전 10시 이후 상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시가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전주천변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 정비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전주천 매곡교 상류 좌안(남부시장 맞은편) 고수부지 주변에 형성된 새벽시장으로 인해 물건적치와 쓰레기 투기, 악취발생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관련 부서별 대책회의를 통해 천변둔치 및 인도에서의 오전 10시 이후 새벽시장의 상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새벽시장 관련 물건 적치 여부를 단속하기로 했다. 또, 남부시장 상인회와 번영회 등과 협의해 이주상인 처리대책을 강구해나가고 있다. /김민근 기자

나이트클럽서 만난 여성 금품 훔친 30대 검거

전북 익산경찰서는 27일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의 목걸이를 훔친 양모씨(33,남)를 형사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11일 오전 7시께 익산시 평화동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 A씨(31,여)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양씨는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A씨와 함께 모텔에 투숙한 이후 A씨가 자고 있는 틈을 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경찰에서 범행사실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근 기자

대기업 취업 알선 미끼로 돈 받은 40대 700만원 벌금

전주시법 형사3단독 이배근판사는 27일 대기업에 취업시켜 준다는 허위 사실로 구직자 부모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쟁전 혐의로 기소된 A씨(40,남)에게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4월 전주시 완산구 소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아들의 취업을 걱정하는 A씨에게 대기업에 취업시켜 준다고 3,600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돈을 받은 이후 취업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근 기자

전주의 문화, 이탈리아 피렌체에 소개

피렌체 한국영화제서 비보이댄스 선보여 비빔밥·모주 등 특산물 전시

비빔밥과 비보이댄스 등 전주의 문화가 르네상스의 발상지이자 유럽 문화의 꽃으로 불리는 이탈리아 피렌체에 소개됐다.

전주시는 국제우호도시인 이탈리아 피렌체시의 요청에 의해 2017 피렌체 한국영화제에 전주시 홍보사절단을 파견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피렌체 한국영화제는 전주시와 이탈리아 피렌체 간의 교류에 큰 공헌을 해온 리카르도 젤리 태극기·토스카나 코리아 문화협회 회장이 주최하는 행사로, 해외에서 열리는 한국영화제로서는 가장 역사가 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렌체에 파견된 홍보사절단은 전주시 홍보대사인 라스트포원으로, 세계적인 비보이 그룹인 이들은 지난 23일 피렌체 두오모(대성당) 인근에 위치한 라 톨파나 극장에서 열린 '2017 피렌체 한국영화제'의 개막식을 성공적으로 장식했다.

한국과 이탈리아 영화제 관계자, 토스카나 시와 피렌체 시 관계자, 이탈리아 관객 등 개막식에 참석한 400여명은 전주의 부채를 활용한 라스트포원의 공연에 대해 극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빔밥과 비보이댄스 등 전주의 문화가 르네상스의 발상지이자 유럽 문화의 꽃으로 불리는 이탈리아 피렌체에 소개됐다.

시는 또,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피렌체 한국영화제 기간 동안 비빔밥과 모주 등의 전주시의 대표 특산품을 전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전주시와 이탈리아 피렌체 시는 지난 2007년 우호도시협약 체결 후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추진해오고 있다.

시는 오는 4월에는 이탈리아 피렌체 수공예박람회에서 전주의 수공예품들을 전시할 계획이며, 오는 10

월에는 이탈리아 피렌체와 우호교류 10주년을 기념해 자매도시 격상 체결 및 전주시이탈리아문화주간을 개최해 전주시민들에게 이탈리아의 문화를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전주시 홍보대사인 라스트포원은 이번 영화제의 개막공연 외에도 전주를 해외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오픈한 글로벌전주 영문 페이스북(www.facebook.com/globaljeonju)에 게시할 비보이 영상을 피렌체에서 제작할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금융취약계층 대상,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법 교육

빛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위해 운영 중인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금융 정보에 취약한 시민들을 찾아 나섰다.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는 27일 중화산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3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융복지 시민강좌를 개최하고, 재무설계와 보이스피싱 신고 요령 등 금융 교육 및 상담을 실시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법'을 주제로 열린 이번 교육은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올바른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보이스피싱 예방 및 신고요령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스스로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또, 금융피해를 당했지만 어느 곳 하나 하소연할 데 없어 어려움을 겪어온 시민들에게 금융관련 개별상담을 제공하지는 않더라도 담겨있다.

이날 강사로 나선 김진영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상담사는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가계 재무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강좌에 이어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금융관련 심층상담도 진행했다.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는 분기별로 1회씩 주민센터와 지역자활참여센터 등을 찾아가 금융복지 시민강좌를 열고 다양한 금융관련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민근 기자

다툼 말리던 여동생 칼로 찔러 살해한 오빠 긴급체포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며 칼로 위협하던 중 말리던 여동생을 칼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무주경찰서는 27일 살인 혐의로 A씨(47,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께 무주읍 소재의 자택에서 아버지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도중 이를 말리던 여동생(31,여)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여동생은 가족의 신고

로 즉시 병원에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경찰에서 "검찰로 보내달라"는 말만 반복하며 살해 동기를 함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A씨가 정확히 여동생을 찔른 경위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무주=전문선 기자

구독문의 288-9700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응급 구호품 세트

홍보대사 안재욱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